

“전주 미래 청사진 실행 원년”

우범기 시장, 간부공무원 145명 참석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 주제

우범기 시장은 22일 전주시자원봉사 센터에서 시 산하 16개 실·국·소장 등 과·동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45명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과·동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민선8기 2년차인 올해 중요한 변화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해까지 전주 대변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원동력이 될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부터는 새해 초부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규제혁신과 민생 현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올해가 전주



우범기 시장은 22일 시 산하 16개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145명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미래 청사진을 동시에 실행하는 원년인 만큼, 그간 제시한 미래 비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를 기대한다.

우 시장은 또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 회복의 시작은 현장에서부터 이뤄진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

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 도시 주요 거점별 핵심 공간의 변화를 이끌고, 전주의 새로운 경

제지형을 완성하는 대형 미래 비전인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경제·문화·복지·도시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을 10대 역점전략으로 정하고, 밀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전주·완주가 지역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해 온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 전주 대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면,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 변화하는 전주의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단정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시장은 올해 초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4에서 드론축구를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등 시민을 위해 계획한 전주의 큰 꿈을 실행하기 위한 한창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특례보증 확대 화답 감사”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시·전북은행에 감사 전제

전윤미 전주시의원(사진)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대한 전주시와 출연금을 추가한 전북은행에 감사 전제했다.



모든 지난해 1,000억 원에 이어 올해 700억 원 등 총 1,70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된다. 당초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36억 원을 추가 출연해 500억 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었다.

한편, 22일부터 개시된 2024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3개월 이상인 개인 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3년간 발생한 3%의 이자도 지원된다.

전윤미 의원은 “고금리와 원금상환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전주시와 상생금융 실천으로 답해준 전북은행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구지회, 성금 100만원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규원) 완산구지회, 지부 여성위원회는 22일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배희곤)을 방문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구지회 회원 일동이 정성을 모아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완산구 관내 저소득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원 지부장은 “경기 불황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도 완산구지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구지회의 후원에 감사한다. 전달 받은 성금은 도민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상담·신청 개시

개시 첫날 59억원 규모 특례보증 상담 이뤄져 조기 마감 예상... 올해 총 700억원 지원

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올해도 접수 첫날부터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 및 신청이 개시된 22일 하루 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담 건수가 총 160여 건, 상담 예약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개시 첫날에만 약 59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상담이 이뤄졌으며, 상담 예약 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정된 총 700억 원의 지원이 이번 주 내에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전주시와 전북은행의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에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늘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상담 및 신청이 개시된 22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년 총 7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소기업 1.5억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 지난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욱기 기자

특히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79%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면 고객부담금리는 연 2.79% 수준이다.

상담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장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계기로 경영 회복의 기회로 삼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성장·발전을 이뤄내 강한 경제도시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향상을 위해 올해도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시는 22일부터 전주지역 경로당과 복지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교육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후 희망일시에 맞춰 앞서 양성한 1회용품 줄이기 시민강사 9명을 파견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에 파견될 시민강사들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와 일회용품 배출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는 등 쓰레기 배출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지역 학교와 유치원,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6500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2019)로 문의하거나 전자우편(yj2244@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대학생 꿈드림 꿈멘토단’ 모집

전주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올해도 지역 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협력지원 사업인 ‘대학생 꿈드림 꿈멘토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과 연계해 도내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주수치를 전주로 둔 대학(원)생으로 꿈멘토단을 구성해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김욱기 기자

주요 사업내용은 △경점고시 교재 지원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대비반(집단 또는 1:1개인) △꿈멘토단 운영 등으로, 꿈멘토단은 올 연말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습을 돕길 희망하는 전주지역 대학(원)생은 대학 게시판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2월 2일까지 ‘전주시 꿈드림 꿈멘토단’으로 지원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